

감사의 글

지난 2006년 12월 6일,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을 위하여 소중한 실천을 함께 해온 분들을 모시고 창립 7주년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. 늘 저희 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선생님께서 함께 자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
여성에게는 척박한 기부 현실, 그러나 이 땅의 딸들을 위한 꿈과 희망의 사업에 언제나 함께 해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곳곳하고 또 당당하게 7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. 앞으로도 한결같이, 저희 재단이 지금의 소명을 잊지 않고 더 훌륭하게 성취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특히 저출산고령사회, 가족해체, 비정규 노동과 실업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가 곧 여성의 문제인 이 시기에, 평등평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에 본 재단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저희와 함께 하는 파트너 단체들과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응원해주십시오. 이들이 곧 여성재단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

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, 선생님의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006년 12월 15일

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